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www.naknong.or.kr

투쟁속보28

[국회 앞 농성투쟁 94일째]

제 공 자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제 공 일 : 2022년 5월 20일(금)

담당부서 : 정책기획본부(02-588-7055)

담 당 : 한지태 본부장, 이정훈 과장

농성투쟁 94일째, 낙농가 위기감 최고조!

- 이승호 회장, “새정부와 신뢰를 갖고 협상하겠다” -

- 농성투쟁을 전개한지 94일째인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는 현장 낙농가의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다.
- 전국에서 상경한 지도자들은, “사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그간 정부의 낙농대책 강행 추진으로 인해 농가들의 사육의지는 역대 최저다”며, “납유거부 등 농가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침을 내려달라”고 이승호 회장을 격려했다.
- * (5.15일) 경기 연천군 : 이준석 연천축산계장, 진형원 협회대의원 등
- * (5.16일) 강원 철원군 : 이원규 철원낙농연합회장, 김유철 철원축산계장, 조봉연 철원군낙농진흥회장 / 경기 안성시·화성시 : 이진우 협회이사 (연세연합낙우회장), 서준호 협회前이사
- * (5.17일) 경북 김천시·경주시·칠곡군·영천시 : 최한규 협회부회장, 김균 협회이사, 조명식 경북도지회장, 강동구 청년분과 경상북도위원장, 김도훈 청년분과 경상북도부위원장

- * (5.18일) 충북 청주시 : 이용욱 부회장, 정헌모 이사, 신화식 충북도지 회장, 오종권 충북낙협조합장과 충북낙협 임원 등
 - * (5.19일) 울산 : 김명광 협회이사 / 경남 김해시 : 허성진 부산 우유연합지회장
 - * (5.20일) 경기 이천시 : 박양선 장호원낙우회장 등
- 이에 이승호 회장은 “정황근 신임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부에서는 낙농가와 싸우지 않을 것이며, 낙농가와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와 신뢰를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며, “만에 하나 농정독재에 의해 만들어진 기존 낙농대책이 강행될 경우 전국 농가의 힘이 필요할 것이며, 협회는 언제든지 ‘벼랑끝전술’을 전개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 낙농기반 붕괴가 기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성수기(하절기) 우유부족사태 발생을 예상하고 있어, 낙농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올해 1분기 젖소 사육마릿수(통계청)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39만 7천두로 나타나, 2011년 구제역 파동(젖소 약 3만 6천두 매몰) 이후 11년 만에 40만두 미만으로 떨어졌다.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올해 원유생산량전망치는 전년대비(203만톤) 대비 약 4% 감소한 195만톤으로, 2011년 구제역파동 당시 생산량(190만톤)에 근접한 수치다.

○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사료값 폭등, 원유감산정책(마이너스쿼터제)에 따라 낙농가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유가공협회와 손잡고 사실상 감산정책인 낙농대책(낙농진흥회 관치화, 연동제 폐지·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추진) 강행을 추진함에 따라 미래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지난해에만 전년대비 67%나 목장폐업이 증가했다”며, “낙농특성상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낙농기반 유지를 위해 연동제 근간유지, 전국쿼터제 도입,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전제로 한 새로운 낙농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5월 17일(화), 국회 앞 농성장에서 축산업계 최대현안인 사료가격 폭등 대책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제2차)를 개최하고, 조만간 사료가격 폭등대책 요구사항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재차 건의키로 하였다.

○ 또한, 5월 18일(수) 축산단체(낙농·한우·한돈) 실무책임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금번 국회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료구매정책자금(1조1,450억원)이 무이자로 적용(1.8%→0%)될 수 있도록 건의활동을 전개하였다. “끝”